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예고, 특목고 지위 계속 유지

도교육청, 특목고 지정 취소 '미승인' ... "사립학교 변경인가 요건 충족해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1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예고는 사립학교 변경인가 요건 충족 이후 특목고 지정 취소(일반고 전환)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예고등학교의 특목고 지정 취소 신청' 건은 '미승인'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주예고는 특목목적고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이날 도교육청이 밝힌 미승인의 주

된 사유로는 먼저, 특목고의 지정 취소만으로는 학교 측에서 신청한 재정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하며, 선결 과제로 사립학교 변경인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전북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원 전체의 의견으로 전주예고의 지정 취소의 주된 사유가 단순히 일반고로의 전환보다는 재정 지원을 통한 학교 정상화가 목적임을 고려해 전주

예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 여부와, 사립학교 변경인가를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학교법인 측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전주예고는 수익용기본 재산 확보기준액 미충족으로 사립학교 변경인가의 승인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결합보조금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변경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목고의 지정 취소는 학교의 재정 악화로 이어져 학교 운영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사립학교 변경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 지원 없이 특목고 지정 취소를 승인할 경우, 결과적으로 학교는 재정수입이 대폭 감소해 학교 경영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성기자

도내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돕는다

도, '365 언니 멘토단' 발대 선배·후배 간 멘토링 실시 국적취득비용 30만원씩 귀화 위한 경제적 지원도

전북도는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일상 속에서 각종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멘토단을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2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이지훈 전북다문화거점센터장,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도가 이번엔 구성된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국적을 취득한 선배 결혼이민자들이 멘토 역할을 맡아 경험을 공유하며 국적 취득을 적극 돕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21년 11월 기준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도내 결혼이민자는 총 1만 2179명이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체 결혼이민자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 발대식이 2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이지훈 전북다문화거점센터장,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1.5%인 6,272명으로 아직 절반 가량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 요건과 절차 가운데 결혼이민자가 혼인상태로 2년이상 거주하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한국에 1년이상 거주하면 면접시험을 통해 혼인 간이귀화가 가능하다. 이번 멘토단은 중국을 비롯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 모두 7개국의 결혼이민자(멘토)와 초기입국 결혼이민자(멘티) 40쌍으로 구성된 멘토는 멘티에게 국적취득 관련 한국어 교육, 모의면접,

취득 관련 행정절차 안내 등 국적취득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1대1 집중 조력하게 된다. 도는 '전라북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규정을 적용해 올해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해 국적 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도는 또 결혼이민자들이 원활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취득반을 운영해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한국 사회 이해교육과 귀화면접을 대비한

모의면접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교육, 대학 학비지원, 방문교 육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선배 결혼이민자가 멘토가 돼 후배 결혼이민자 멘티에게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들을 아낌없이 알려줘 스승이자 상담자이고, 친구같은 선배가 되어주기 바란다"며, "결혼이민자들이 선배들의 도움을 통해 국적을 취득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자 전북도민으로 자긍심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갈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할로, 도이칠란드' (안녕, 독일)

독일 문화, 전주서 만끽

시, 31일부터 1주일간 '독일문화주간' 행사

음악 공연·세미나·체험·영화 상영 등 다채

관광거점도시 전주에서 음악과 문화, 철학 등 세계사를 비춘 독일 문화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1주일 동안 예코시티 세병공원과 전주혁신도시 등 전주시 일원에서 '2023 전주세계문화주간-할로, 도이칠란드(안녕, 독일)' 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전주세계문화주간 행사는 빼어난 음악과 문화, 철학 등으로 유구한 역사 동안 유럽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독일 문화의 정수를 맛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한독일대사관(대사 내정자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문화원(원장 클레멘스 트레터), 한독상공회의소(대표 마틴 켈켈만) 등 다양한 기관 및 기업의 참여와 후원 속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독일문화주간 행사는 첫날 전주향교에서 독일 출신의 건축가 다니엘 텐들러의 사회로, 최근 부임한 주한독일대사 내정자와 전주 시장이 공동 초청한 독일과 전주의 주요 VIP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서막을 올린다.

이어 일주일 동안 펼쳐질 본 행사에서는 특히 풍성한 독일음악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악 공연과 세미나를 눈여겨볼 만하다.

베를린 필하모니 바이올리니스트 요한나 피호파이어와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교수를 역임한 마르쿠스 도이네르트 등이 함께하는 전주시립교향악단의 협연 및 세미나는 9월 1일과 4일, 5일 등 3일간 각각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덕진 예술회관, 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에서 △독일음악의 라이벌 브람스와 바그너 △위대한 베토벤 △한독 교향악단의 과거와 미래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독일문화주간 행사의



'2023 전주세계문화주간-할로, 도이칠란드' 포스터.

핵심이자 독일기업과 독일음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독일체험행사'는 오는 9월 2일 세병공원에서 펼쳐진다. 또한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독일을 대표하는 영화감독인 빔 벤더스의 작품 상영도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올해 독일문화주간에서는 △베스트셀러인 '마흔에 읽는 니체의 저자로 잘 알려진 정재형 작가 등과 함께하는 '독일문학 및 철학 콘서트' △발도르프 자연유아 강연 △전주푸드 효천점 마을 부엌에서 펼쳐지는 어린이·어른 쿠키강좌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루프트한자, 파커카스트 국립음대 교수를 역임한 마르쿠스 도이네르트 등이 함께하는 전주시립교향악단의 협연 및 세미나는 9월 1일과 4일, 5일 등 3일간 각각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덕진 예술회관, 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에서 △독일음악의 라이벌 브람스와 바그너 △위대한 베토벤 △한독 교향악단의 과거와 미래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독일문화주간 행사의 /김옥기 기자